

영은(로사리아)과 준 웅(알바로): 교황으로 부터 세례를 받기 위 해 한국에서 로마로 떠나는 여행

한국에서는 오푸스데이 센터를 자주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부활 성 야 미사에서 이들은 세례를 받

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2024-3-29

영은(로사리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최영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다음 짧은 글로 표현하여 제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과 갈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를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독실한 신자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친구를 따라 대학에서 가톨릭 동아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성당에 다니며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제 세례식에서 제 대모가 될 것이고 저는 그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지해줘서 좋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셨고,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면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 고향에 있는 대성당의 위치를 알아내어 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의심이 사라지고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에 대해 거의 잘 모르지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웅 (알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놀랐어요".

저는 안준웅이며, 다가오는 부활 성야 미사 때 교황으로부터 알바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 출신이지만 한 살 때부터 19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전기 공학을 전공한 후 현재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IT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

장 원하는 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9년 동안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전,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으로 가서 지환이를 만났을 때 종교에 대한 저의 믿음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올곧은 삶의 방식을 보면서 저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오푸스데이 센터를 방문했고, 가끔씩 그곳에 계속 갔습니다. 또한 대학 수업을 마친 후 매 학기 금요일마다 꽃동네 수도자들과 함께 1박 2일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3년 전 피정 기간에 처음으로 미사에 참석하면서 신앙에 대한 열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가톨릭 신자들과 센터에 있는 제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교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리교육(예비교리)을 받으면서 배운 가장 인상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가장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UNIV 여행 덕분에 저는 올해 부활 성야 미사 때에 교황으로부터 알바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식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됩니다. 2023년 부활 성야 미사 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섯 번 정도 봤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고,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느껴

집니다. 긴장감이 많아요... 실수 몇 개
나 할 것 같아요.

수요일에 성 라파엘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저는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좋은 신자가
되어 그 사랑을 교회에 돌려줘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yeongeun-rosaria-gwa-junung-albaro-gyohwangeurobuteo-seryereul-badgi-wihae-hangugeseo-romaro-ddeonaneun-yeohaeng-2/> (2026-1-18)